

재외동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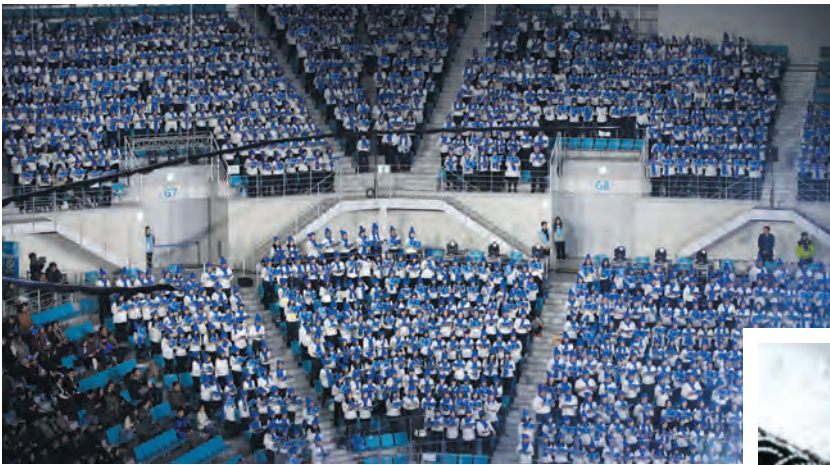
창

April 2017



재외 한인들에게 어머니 품 같은 감흥의 민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 한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



2월 9일 강원도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년 기념행사에서 2천18명이 강원도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



1926년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아리랑'의 한 장면. '아리랑'은 춘사 나운규(1902~1937)가 각본, 감독, 주연을 맡은 기념비적 영화로 우리 민족에게 뜨거운 감격을 줬지만, 필름은 남아있지 않다.

한민족의 정서가 깃든 대표 민요 아리랑. 눈물과 한(恨)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치유하고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는 어머니 품과 같다. 함께 듣고 노래할 때 모두가 절로 하나 됨을 느낄 만큼 아리랑은 신묘한 공감력을 지니고 있다.

아리랑은 한반도의 중동부에 있는 심산유곡의 강원도 정선 땅에서 유래한다. 아리랑이 언제부터 불렀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저런 설들만 분분할 뿐이다. 아무튼, 정선지역에서 전승돼오던 아리랑 가락은 고려조 말부터 가사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아리랑이 언제, 어떤 연유로 전국에 퍼져 나가게 됐을까? 정선아리랑과 더불어 아리랑을 대표하는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이 생긴 배경과 과정이 궁금해진다. 백두대간 정선에서 태어난 아리랑은 1865년부터 7년간 계속된 경복궁 중수(重修)를 계기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각지에서 동원된 인부들은 문경 땅에서 베어져 온 박달나무를 깎고 다듬고 세우며 겪는 삶의 고단함과 애절함을 덜기 위해 정선지역 인부들이 흥얼거리는 강원 아리랑을 따라 불렀던 것. 연일 힘겨운 공사장에서 강원 아리랑의 하나인 '문경아리랑'으로 위안을 얻었던 젊은이들은 부역

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현지 음악어법과 정서에 맞게 변이시켜 생활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은 이렇게 탄생한다. 진도아리랑에 난데없이 '문경새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환골탈태한 뒤 박승희 원작의 연극 '아리랑', 최승희의 춤 '아리랑환타지', 가곡 '아리랑강감', 유행가 '아리랑동동' 등 모든 장르로 퍼져 나간다. 특히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떠났던 해외 동포들에게는 망국의 한을 달래고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노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민족의 노래'로 탄탄하게 자리 잡았으며 2012년에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



CONTENTS

2017. 04



- 02 한국의 얼 재외 한인들에게 어머니 품 같은 감흥의 민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 한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
- 04 특집 올해 세계한상대회 "모국과의 동반성장 대회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 · 리딩CEO포럼 창원서 개최
대회장에 가나 입도재 회장 선출, 내년 개최지 인천 확정
- 06 기획 한인 미주 이민 1호 '하와이 한인사회'
사탕수수 노동자와 '사진신부' 가 이룬 가정이 모태
- 08 화제 미국 최악의 인종폭동 'LA폭동' 25주년
한인 단체들 '화합과 공존' 위한 행사 펼치
- 10 글로벌 코리아 '한국어 회화' 책자 퍼낸 브라질 한인동포 전재성 씨
'美동포 차세대 양성 34년' 한미연합회 이사장에 쉐리 송 씨
미국 명문 코넬대 첫 한인 의대학장 최명근 박사
- 12 동포소식 "동포사회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국 한인회장 새 얼굴 외
- 15 동포 캘린더 한국-태국 청소년들 '미술로 소통'... 방콕서 아트페어 외
- 16 유공동포 금융보국의 꿈 '신한은행' 창립 주역 이희건 회장
서울올림픽 때 재일동포 100억 엔 후원금 모금 주도
- 17 주목! 차세대 '평창 올림픽 연출' 참여 가 한인 1.5세 장희용 씨
'팬암대회' 총연출 경험...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무대로"
- 18 지구촌통신원 佛 한인사회 '십사일반' 한글학교 전용공간 첫 결실
"셋방 신세 벗어날 때까지 모금활동 계속"
- 19 한민족공감 재외국민 대선 투표 신청 '역대 최대'... 29만8,000 명
전체 재외 유권자의 15.1%... "투표 참여율 갈수록 높아져"
- 20 OKF 뉴스 쿠바 한인후손 6명 재외동포재단 초청 직업연수 수료 외
- 22 동포문학 내가 사는 숨가트를 소개합니다
김예향 _ 아제르바이잔 _ 2016 동포문학상 초등부문 최우수상
- 24 고향의 맛 · 멋 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서울 토박이 음식 '설렁탕'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서도 변함없는 사랑 받아"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3월 28~29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 25~27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를 한상과 모국 간 동반 성장의 대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세계한상대회 “모국과의 동반성장 대회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리딩CEO포럼 창원서 개최

대회장에 가나 임도재 회장 선출, 내년 개최지 인천 확정

올해 10월 25~27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는 한상과 모국 간 동반성장의 대회로 삼겠다고 3월 28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천여 명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대회 결과를 검토하고 올해 대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 경제단체장과 한상(韓商) 리딩 CEO 4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한상대회 제30차 운영위원회 및 제31차 리딩CEO포럼을 3월 28~2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했다.

28일 오후부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결과 보고와 올해 창원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10.25~27)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대회장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임도재(65) 글로벌엔지니어링 리미티드 회장을 선출했다. 내년 대회 개최지로는 인천광역시 선정됐다.

운영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아중동한상연합회,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등 대륙별, 업종별, 세대별 경제단체장과 주요 한상이 참여했다.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리딩CEO포럼에서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전략과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한상 기업 청년 인턴십'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글로벌한상드림(이사장 홍명기) 이사회도 열렸다. 오세영 라오스코라오 그룹 회장, 임도재 가

나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장, 김정배 아중동한상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확대와 7억 원이 모인 기부금 확충 계획을 검토했다.

행사기간 운영위원과 리딩CEO들은 창원공단 등 전자, 자동차, 조선 등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둘러보았다.

행사에 참가한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매년 열리는 세계한상대회가 기존 참가자만이 아니라 신규 참가자를 대거 발굴해 새로운 자극과 활력이 넘치는 대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명기 미국 'M&L 흥 재단' 이사장은 “한국 제품이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국내기업 및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오세영 라오스코라오그룹 회장은 “국내와 사정이 전혀 다른 해외에서 기업을 일구거나 직업을 얻는 일은 쉽지 않은게 당연하다”며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도전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임도재 대회장 “창원 매력적인 도시”

세계한상대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30차 운영위원회

2017. 03. 28(화) 16:00 창원컨벤션센터



1



2



3



4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 아프리카중동한상연합회 상임고문인 임도재 회장을 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운영위원회에는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한창우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장, 홍명기 미국 듀라코트 회장,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정진철 로얄아이맥스 회장 등 동포 사회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38명이 참석했다.

아프리카 최대 한상인 임 회장은 24년 전 SK건설 지사장으로 가나에 건너가 5년 만에 독립했다. 건설회사인 글로벌엔지니어링리미티드와 수산업체 해심, 장비 임대·운송업체 글로벌로지스틱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유저장 시설 건설, 물류, 자재 분야에 진출해 연간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아중동 지역 출신의 첫 번째 한상대회장인 임 회장은 "창원은 조선·자동차·전자 부품 산업단지가 구축돼 있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도시라서 한상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대회를 알차게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은 한민족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라며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파견하도록 '한상 청년 인턴십'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 제30차 운영위원회 및 제31차 리딩CEO 포럼을 3월 28~29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2. 3월 29일에는 글로벌한상드림(이사장 홍명기) 이사회도 열려 청소년 장학사업 확대 등을 논의했다.
3. 인천광역시에서는 내년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했고, 차기 대회지로 선정했다.
4.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임도재 회장을 선출했다.

내년 개최지 인천광역시 선정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회 유치 신청서를 단독 제출한 인천광역시의 개최 계획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인천시는 글로벌 경제교류의 대표적인 플랫폼 도시로 다양한 국제 행사 경험이 축적돼 있어 대회 개최지로 부족함이 없다고 운영위원들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1만여 개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제조·물류 중심도시"라며 "한상대회가 해외 판로 확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천여 명이 참석하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모국과 동포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창**

한인 미주 이민 1호 '하와이 한인사회'

사탕수수 노동자와 '사진신부' 가 이룬 가정이 모태



Hawaii



최초의 하와이 이민선 갤릭호.

일제 강점기 미국 하와이로 이주한 '사진 신부' (picture bride) 천연희(1896~1997)씨의 유품이 10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사진은 천 씨가 하와이에 사진 신부로 갈 때의 여권.



한인의 미주 이민 역사는 1903년 1월 13일 게릭호 편으로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시작이었다. '미주 한인의 날'이 1월 13일로 정해진 것도 한인 이민자가 처음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올해로 미주 이민은 114주년을 맞았다. 하와이 첫 이민자들이 인천항을 떠난 것은 1,033명의 한인이 1905년 4월 4일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 계약 노동자로 이민 길에 오른 것보다 2년 정도 앞선 시점이다. 하와이 이민 첫해에 게릭호를 비롯해 16척의 배로 1,133명이 하와이에 도착했고 1905년 마지막 배 몽골리아호까지 11척 선박이 56회를 다니면서 총 7,291명의 이민자를 호놀룰루항으로 데려왔다. 1905년 8월에는 7,400 명에 이르렀다.

하와이 이민은 그러나 하와이에서 한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가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측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1905년 중단됐다. 하와이 이민은 한국 정부의 허락하에 자국민을 공식적으로 해외에 이주시킨 첫 번째 사례

이다.

사탕수수 노동자 신분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은 오아후 섬을 비롯해 하와이 섬(빅아일랜드), 마우이 섬, 카우아이 섬 등에 있는 30여 곳의 사탕수수 농장 및 커피 농장으로 흩어져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했다.

이들 한인은 대부분 20대 독신 남성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으나 한인 여성이 없어 결혼할 수가 없었다. 결혼하려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것이 '사진결혼'이다. 서로가 사진을 중매쟁이를 통해 주고받고, 이 사진을 들고 아가씨가 신랑감을 만나러 하와이로 건너왔다. '사진결혼'으로 1천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가 이민 가정을 형성했다.

'사진신부'들이 하와이로 건너와 가정을 이룬 덕분에 이민자들은 빨리 경제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인 2세대들이 태어났고 농장 내 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조직은 조국의 독립



1



2



3



4

1. 20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 와이키키 해변 칼라카와아 거리에서 60여 한인단체와 하와이 동포, 국내외 인사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
2. 하와이 한인회가 지난해 개최한 7주년 광복절 기념식. 6·25와 월남전 참전 용사들과 메이저 히로노 미 연방 상원의원(앞줄 가운데), 데이비드 이계 주지사가 참석했다.
3. 초기 한국 이민자들이 일했던 하와이 오아후 섬 모쿠레이아 사탕수수밭을 알리는 고속도로 표지판.
4.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한인교회.

하와이 인구분포는 전체 인구 130여만 명 가운데 일본계가 20만 필리핀인 30만, 중국인 10만, 하와이안 8만 명 등이며 한인 숫자는 5만5,000여 명이다. 한인 가운데 5만 명은 오아후 섬에 살고 마우이 섬 3,000명, 하와이 섬 1,500명, 카와이 섬 200명 등이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하와이 거주 한인은 4만6,759명이고 대부분(4만2,128명)이 미국 시민 권자이다.

현재 한인의 대부분은 요식업, 운수업, 관광업, 편의점, 호텔 용역근로자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민세대는 이제 4~5세대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1.5세대, 2세대까지 한국말을 구사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으나 3, 4세대 젊은층은 한국말 구사에 어려움이 많아 한인회는 이들에게 모국어 가르치는 한글학교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미 1907년부터 24개의 한글학교를 세워 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2세들이 나라이 글을 잃지 않도록 했다.

1980년대에는 평생교육 과정에 한국어반을 포함했다. 현재는 하와이 주 각 대학가에 한국어 강의실이 붐비고 있어 한국어학과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박봉룡 한인회장은 전했다.

하와이에서 볼 수 있는 한국문화 가운데 김치를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부터 하와이 호텔 뷔페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김치를 하와이 현지 음식인 줄 착각할 정도이다. 한류 또한 하와이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가 하와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1989~1990년 '울 밑에선 봉선화'가 1980년 3월에 설립된 미국 내 첫 한인 방송국인 Kbfd에서 영어 자막을 넣어 방영하면서 현지인 사이에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하와이 한인회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 가운데 '이민의 종가'답게 이민기념행사가 눈에 띈다. 올해는 1월 13일 호놀룰루 시 인천-하와이공원(인하공원)에서 기념식, 와이키키 리조트호텔에서 기념만찬을 가졌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당면 과제는 한인회관 설립과 함께 매각된 한국 독립문화원 원상 복귀이다. 하와이 한인독립운동 유적지인 독립문화원이 미국인 부동산업체에 매각된 후 한인사회 일각에서 재매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정**

립운동에 자금을 보태는 기반이 되었다. 이민자들은 점차 노동 조건이 열악한 사탕수수 농장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해서 식품점, 양복점, 제화점, 세탁소 같은 자영업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나갔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역사가 깊은 만큼 주류사회로 진출한 인물 또한 적지 않다. 1993년 이민 3세인 로널드 문(한국명 문대양)이 하와이 주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검찰총장, 교육청장, 경찰국장과 여러 명의 현직 의원을 배출했다.

미국 최악의 인종폭동 ‘LA폭동’ 25주년 한인 단체들 ‘화합과 공존’ 위한 행사 펼쳐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

미국 최악의 인종 폭동으로 꼽히는 LA 폭동이 일어난 지 25주년을 맞았다. 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시미밸리 법원에서 흑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백인 경찰관들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흑인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폭력과 방화, 약탈로 폭발시켰다.

이들 경찰관은 1년 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흑인 로드니 킹이 정지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곤봉으로 마구 때린 끝에 중상을 입혀 기소됐다. 당시 킹을 구타하는 장면은 새로 산 캠코더를

시험하던 한 시민이 생생하게 촬영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흑인 사회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당연히 단죄받아야 할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에 흑인들이 들고일어났다. 옛새 동안 이어진 폭동의 최대 희생자는 한인들이었다. 백인들에게 받는 차별에 대한 분노를 엉뚱하게도 한인들에게 쏟아낸 것이다.

4월 29일 시작되어 5월 4일까지 계속된 폭동 기간에 52명이 사망하고 2천238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에는 폭도로 오인되어 살해된 한인 청년도 있었다. 방화 또는 약탈 피해를 본 전체 4천500여 개 업소 중에서 한인 소유는 2천300여 개였고 전체 10억 달러의 재산피해 중 한인 피해액이 4억 달러에 달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LA 한인타운은 폭동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다. 폭동의 원인이 됐던 인종 간 갈등과 반목도 많이 완화됐다. 하지만 LA 한인 사회에는 25년 전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삶의 터전이 사라진 트라우마가



‘LA폭동’ 25주년에 맞춰 체험기 ‘캐시어의 비망록’을 펴낸 1.5세 미국 동포 작가 캐롤 박.

아직도 남아 있다. 여전히 인종 폭동의 불씨는 잠복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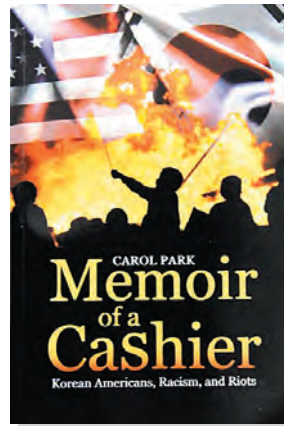
흑인 사회가 25년 전이나 다름없이 고실업과 저소득에 허덕이는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백인뿐 아니라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이민자들에게도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LA 폭동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문제가 발화점이었지만 피해는 한인에게 몰렸듯이 흑인과 히스패닉 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간지점의 한인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LA 폭동은 한인 사회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력 없이 경제력만으로는 언제든지 다시 당할 수 있다는 것과 소수민족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소수민족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올해 LA폭동 25주년을 맞아 현지 한인 단체들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LA한인회를 중심으로 데이비드 류 LA 시의원실, 한미연합회, LA 한인상공회의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가주식품상연합회 등 40여 개 단체는 최근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아픔을 극복하고 화합과 공존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열기로 하고 '4·29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LA 시의회와 LA 카운티 정부가 후원을 약속한 25주년 기념행사가 4월 13~29일 한인타운, 사우스 LA, 캘리포니아대(UC) 어바인, 리버사이드, LA시청 등지에서 열린다. 행사는 폭동 피해자 인터뷰, 리셉션, 청소년 대상 폭동 교육 및 토론회, 다큐멘터리 상영 및 강연, 커뮤니티 화합행사, 문화공연, 평화 대행진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4월 29일 기념일 당일 오전 10시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는 올림픽가 노먼디와 버몬트 구간을 오가는 평화 대행진이 펼쳐진다.

같은 시간 한인타운 남단 퍼스트 AME 흑인교회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동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폭동 원인으로 꼽힌 로드니 킹의 자녀, '두순자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25주년 행사의 주제를 '화합과 공존'으로 정했다"며 "이제는 한인과 흑인이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LA를 만들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

“LA폭동 25주년 때맞춰 체험기록 ‘캐시어의 비망록’ 발간”



1.5세 한인 작가 캐롤 K. 박(37) 씨는 LA 폭동 25주년을 앞두고 책 '캐시어의 비망록: 한인, 인종주의, 폭동' (Memoir of a

Cashier: Korean Americans, Racism and Riots)을 펴냈다. 이 책에는 LA폭동 당시 12세였던 그녀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말마다 캐시어로 일하며 체험한 흑인 소요 사태 전말이 담겨있다.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과 폭력, 억압의 악순환을 재조명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그녀는 “LA폭동 전까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면서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뿌리가 한국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책을 내게 된 배경은 LA폭동 상황을 한인의 시각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LA폭동의 발발 원인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비극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안 그래도 최근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폭력, 억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종의 용광로인 미국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다른 인종 간 연대하고 서로 공감한다면 폭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

차세대 동포와 포르투갈어 사용 인구를 위한 한국어 입문서

‘한국어 회화’ 책자 펴낸 브라질 한인동포 **전재석** 씨



브라질 한인 동포들의 손으로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인구와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입문서가 선보여 화제다. ‘한국어 회화’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상황별 대화와 다양한 어휘, 품사 체계, 문법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포함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도 담아 한국어를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발행인인 한인 동포 전재석(63) 씨는 3월 23일 “독학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쉽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소개했다”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포르투갈어 사용 외국인과 한인 동포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과거 브

라질 한글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체계적인 한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한글학교 교장 시절에는 초·중·고교생을 위한 한글 교재 7권을 직접 제작해 성인반을 운영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식 표기법과 발음을 사용하다 보니 브라질 현실과 맞지 않아 교육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번에 나온 ‘한국어 회화’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뜻있는 한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 아래 지난 2008년부터 제작을 시작해 거의 10년 만에 완성됐다. 전 씨가 3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다니며 촬영한 사진 자료가 현장감을 살렸고, 6개월의 작업을 통해 정리한 한국 음식의 포르투갈어 표기법도 수록했다.

한인 동포들이 모여 사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 관계자,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발행을 축하했다.

“이슈 생길 때마다 단합해 우리들의 목소리 높여야”

‘美동포 차세대 양성 34년’ 한미연합회 이사장에 **쉐리 송** 씨

34년간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치력 신장과 리더 양성에 앞장선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약칭 KAC)의 신임 이사장에 쉐리 송(여·53) 전 워싱턴 주 지부 회장이 선출됐다. KAC는 3월 4일 애틀랜타에서 전국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송 전 워싱턴 주 지부(KAC-WA) 회장을 임기 2년의 이사장에 뽑았다. 이 단체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겸 회장은 제니 김(여·43) 오리건 주 지부

회장이 맡았다.

송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KAC는 재미동포 차세대들의 권익 신장과 교육을 위해 활동했고, 특히 정치력 신장과 리더 양성에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권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과제 중 하나는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단합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5살 때 부모를 따라 시카고에 이민한 1.5세인 송

신임 회장은 일리노이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결혼과 함께 시애틀로 이주했다. 이후 워싱턴 주 한미 유권자연맹과 한미전문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이들 단체가 통합된 KAC-WA 회장을 지냈다. 킹카운티 의원과 워싱턴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그는 워싱턴 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이사장, 경찰자문위원회 등에서 일하는 등 한인사회를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비영리 단체인 KAC는 198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운동을 펼친 한

시적 조직 '한인 투표권자 등록추진위원회'가 모태다. 당시 한인 유권자 4천여 명이 등록했고, 한인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세를 몰아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듬해 KAC를 설립했다. 재미동포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시민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입법, 시민운동, 커뮤니티 행사와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KAC는 2003년 전국 조직으로 확대됐고, 미국 전역에 21개 지부를 두고 있다.



“의료기술 개발과 참다운 의료 교육 위해 노력하겠다”


미국 명문 코넬대 첫 한인 의대학장 **최명근** 박사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코넬대 의과대학 임시 학장으로 활동해온 최명근(미국명 오거스틴 최·57) 박사가 코넬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1월 17일 학장에 공식 선임됐다. 한인이 코넬대, 하버드, 예일 등 8개의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의 의과 대학장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그는 로리 그림처 전 학장이 2016년 말까지 스톤 다나파버 암연구소 최고 책임자(CEO)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의대학장에 임시로 뽑혔었다. 최 신임 학장은 “의대 학생, 교수진과 함께 인류 건강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참다운 의료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코넬대의 협력병원인 뉴욕-장로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로어 맨해튼과 퀸스, 브루클린으로 확장하겠다”면서 “앞으로 코넬대 전체의 유관 학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유능한 교수진 영입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한 1.5세

인 최 신임 학장은 메릴랜드 주 루이빌 의대를 졸업하고, 이후 존스 홉킨스·예일대·피츠버그대 의대·하버드 의대 교수를 지냈다.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이 대학 부속 브리검 여성병원의 호흡기내과를 총괄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이 최초로 시도한 ‘하버드식 중환자 치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0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신체에 주입하면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호암상(의학 부문)을 받은 그는 2013년 코넬 의대 내과 학과장 겸 뉴욕 장로병원·코넬대학병원 의료총괄 자리에 올랐다. 최 학장의 부친 최영수 박사는 아시아 최초로 심장절개 수술에 성공한 흉부외과 전문의이다. 할아버지와 루이빌 의대에 재학 중인 큰아들 진웅 씨까지 3대가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부인 매리 최(한국명 최은희) 씨도 하버드 의대 교수다. 



“동포사회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국 한인회장 새 얼굴



최근 선출된 한인회장들. 상단 왼쪽부터 김민선 뉴욕, 강승구 샌프란시스코, 송영희 중국 상하이, 김동배 말레이시아, 홍명옥 스리랑카 한인회장, 김동수 인랜드, 고신석 폴란드, 황세진 남아공, 현봉철 쿠웨이트 한인회장.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상하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한인회가 최근 선거를 통해 각각 김민선(여·57)·강승구(51), 송영희(여·56), 김동배(74), 홍명옥(여·54)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미국 인랜드와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쿠웨이트 한인회도 각각 김동수, 고신석, 황세진, 현봉철 씨를 뽑았다. 뉴욕 한인회는 3월 4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35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민선 현 회장을 인준했다. 5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회장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이화

여대 음대를 졸업한 뒤 1983년 도미해 뉴욕 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며 음악전문학교인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LIC)를 운영하고 있다. 제33대 한인회 이사장,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인권국 부의장 등을 지냈고, 2014년 전미소수민족연대협의회(NECO)가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엘리아일랜드상을 수상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도 지난달 단독 입후보한 강승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2001년 환태평양연합대(PPU)에서 종교학 석사, 2003년 샌프란시스코 크리스천대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홍보대사, 2014년 샌프란시스코 장학재단 사무총장, 2015년 경남 창원시 국제투자유치 홍보대사 등을 지냈다.

중국 상하이 한국인회는 첫 여성회장이 탄생했다. 송영희 상하이 웨이나화장품 대표는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제24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회장 선출을 하지 못하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동배 고문을 제37대 한인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자력 관련 제품 회사인 AMP테크놀로지사를 운영하는 그는 2004년부터 2년 동안 제30대 한인회장을 지냈다. 2003년 말레이시아 한인상공인회를 설립했고,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스리랑카 한인회는 40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을 배출했다. 한인회는 지난달 스리랑카 삼성전자 드림 아카데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홍명옥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독일계 회사에 근무하던 1986년 스리랑카 법인에 파견돼 근무하다 그만두고 현지에 정착한 그는 법률 자문회사인 ‘코호크 레이딩’을 이끌고 있다. 한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한글학교 교장, 민주평통 스리랑카지회 자문위원, 스리랑카 시장을 분석하는 외부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씨네 편의점’ 이선형 씨, 加 스크린 어워드 코미디 남우주연상

미국 인랜드 한인회 제15대 수장에는 김동수 리버사이드 한글학교 이사장이 올랐다. 2013년 미국 내 과협회 연례 총회에서 ‘펠로우’ 칭호를 받은 그는 비영리단체인 리버사이드 파크뷰 커뮤니티 종합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다. 제12대 한인회 이사장, 오렌지카운티·샌디에이고 민주평통협의회 차세대 부회장 등을 지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을 일컫는 ‘인랜드’는 인구 2천5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로, 이곳에는 한인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1900년 초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국권 회복의 꿈을 키웠던 인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일찍 한인사회가 형성됐던 곳이다.

제10대 폴란드 한인회장에는 고신석 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바르샤바 지회장이 뽑혔다. 1999년 LG전자 주재원으로 폴란드 땅을 밟은 그는 협력사 법인장을 거쳐 현지에 정착해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14대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장은 황세진 전 수석부회장이 batong을 이어받았다. 김진의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한인회 이사회는 긴급 총회를 열어 황 회장을 추대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남아공에서 가발시장을 개척한 그는 ‘MIHAIR’라는 브랜드로 가발 수입·도매업을 하고 있다. 한인회 기획부장을 시작으로 재무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 16년 넘게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쿠웨이트 한인회는 지난 1월 말 열린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현봉철 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쿠웨이트를 대표하는 한상(韓商)인 그는 2000년대 초 한차례 한인회장을 지냈고, 사우디 젯다 한인회장도 맡아 활동했다. 1980년대 초 현대건설 직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는 건설자재 무역, 건설업 등에 이어 쿠웨이트에서 ‘알리 알가남’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플랜트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TV의 코미디물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에서 열연한 캐나다 동포 이선형 씨가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 상을 주관하는 ‘아카데미 오브 캐네디언 시네마&텔레비전’은 3월 12일 토론토의 예술의 전당인 소니센터에서 ‘캐네디언 스크린 어워드’가 열려 이선형 씨가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부터 30분씩 시리즈로 방영돼 12월 27일 종영한 코미디물 ‘김씨네...’에서 주연인 ‘아빠’역을 맡았다. 그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은 뒤 극 중 ‘아빠’의 한국어 억양으로 ‘내가 받을 만했다’(Yeah, I deserved)고 익살을 띤 뒤 “꿈만 같다. 자랑스럽다. 문화는 달라도 가족에 관한 것은 모두 같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코미디물은 토론토에 이민한 김 씨 가족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그렸다. 김 씨 부부는 1980년대 이민해 토론토 리전트 파크 근처에 편의점을 차렸고, 아들 ‘정’과 딸 ‘자넷’을 뒀다. 이들은 16살 때 가출했고, ‘아빠’와 ‘엄마’는 예술학교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딸과 편의점을 운영한다.

시청자들은 가족이 일하며 살아가는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유머를 찾고, 아들과 아빠가 화해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시청자들의 인기로 힘입어 CBC-TV는 올해 가을 ‘김씨네...’ 시즌2를 방영할 계획이다.



‘캐네디언 스크린 어워드’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김씨네 편의점’의 이선형 씨.

유럽 최초 '평화의 소녀상' 독일 비젠트 공원에 서다



유럽 최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3월 8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 공원에서 열렸다.



유럽 최초로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 (이하 소녀상)이 들어섰다. 독일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인사, 수원시민 대표단, 수원시 대표단 등 한독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은 3월 8일 '독일 평화의 소녀상 수원시민건립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남부 바이에른 주(州) 레겐스부르크 인근 비젠트의 한 공원에서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소녀상이 세워진 이곳은 세계물(水)재단의 헤리베르트 비르트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네팔-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이다.

공원은 불교를 숭상한 비르트 대표가 지난 2000년 하노버 박람회에 선보인 네팔관을 당시 500만 유로를 주고 사들인 뒤 자신의 땅 2만4천 평에 옮겨와 조성한 곳으로서 히말라야 산 꽃과 나무 5천 종을 보유한 세계 최대 히말라야 식물정원이다. 참석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 109주

년에 맞춰 제막식을 연 것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성폭력 피해자와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올해 90세의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도 노구를 이끌고 함께 해 관심을 끌었다. 소녀상은 애초 수원시 염태영 시장 주도로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프라이부르크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대 속에 프라이부르크 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와 계획은 무산됐다. 이어 독일 내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후보지가 물색됐지만 결국 비젠트로 최종 결정이 났고, 작년 11월 독일로 넘어온 이래 창고에 보관돼 온 소녀상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소녀상 건립은 무엇보다, 기존 해외 소녀상 사례처럼 외국의 일부 기관 또는 지역 한인회가 아니라 재독 교민과 한국인 참여 현지 시민단체, 독일 한인교회협의회, 독일인 목사 등 다수 독일인이 함께하는 건립위원회가 주도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여성, 시민사회, 종교단체, 광복회 등을 망라한 상임공동대표단을 꾸려 출범한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수원시의 협조 아래 평화콘서트와 바자까지 열면서 모금 활동을 펼치는 등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렇게 모은 성금은 부부작가 김서경·김운성 씨가 맡은 소녀상 제작에 3천300만 원이 사용되고 다양한 대(對) 시민 홍보 활동에도 쓰였다.

해외 소녀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권역에는 이미 들어서 있지만, 유럽 땅에는 이번에 처음 들어섰다. **창**

**한국-태국 청소년들 '미술로 소통' ...
 방콕서 아트페어**

한국과 태국 청소년들이 동남아 한류의 중심인 방콕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이 결성한 '한국 청소년 아트모임'과 현지 올리브 갤러리는 3월 18일 방콕 시내 '쁘리디 파농용 인스티튜트 갤러리'에서 '한·태 청소년 아트 페어'를 개최했다. 19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미술을 매개로 양국 청소년 간 소통을 돕고,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뽐낼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학생 16명과 태국 학생 14명이 출품한 그림과 설치 미술 등 100여 점이 전시됐다.



**'강제이주 80년' ...
 러 극동 · 사할린서 5월 고려인 위문공연**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심운중)이 운영하는 농어촌희망 청소년오케스트라(KYDO)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해 5월 23~27일 러시아 극동의 우수리스크와 사할린에서 위문 음악회를 연다. 농어촌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KYDO는 이번에 25명의 단원을 이끌고 공연에 나선다. 첫 무대는 5월 23일 우수리스크 군인회관에서 고려인을 초청해 열린다. 클래식 외에 향수를 달래줄 아리랑, 고향의 봄 등도 연주한다.



**"모바일로 한국어 배우세요" ...
 한국어 어휘학습 앱 무료 배포**

해외에서 한국어 ·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최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앱 '세종한국어 어휘학습'을 개발해 구글 ·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 배포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이 앱은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지원되며 초급 한국어 과정에 필요한 1천700개의 어휘를 소개하고 있다. 앱은 오늘의 단어, 주제별 어휘학습, 단어장, 카드 보관함, 낱말 게임 등으로 꾸며져 있다.



**詩 '향수'를 캔버스에 담았다...
 정택영 재불 화가 고국서 개인전**

정지용 시인의 손자인 재불 서양화가 정택영 씨가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 있는 갤러리 '퐁데자르'에서 19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정 화백은 4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전시회에서 "빛의 언어"라는 주제로 57점의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할아버지의 시 '향수'를 빛의 언어로 그린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미대 교수, 재불예술인총연합회장을 지냈고, 현재 프랑스예술가협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크로드에서 만나는 한국문화...
 국립국악원 中央亞 순회공연**

국립국악원이 '한 · 중앙아시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에 나선다. 이번 공연은 '실�크로드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3월 25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하바트 '막툼굴리 국립극장'을 시작으로 29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립나보이극장', 31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평화와 화합의 궁전'에서 연이어 열린다. 이번 공연은 80년 전 고려인 강제이주의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고 현지 인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있다.



**스코틀랜드서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행사...
 "감사의 마음 전해"**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인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고 이들의 참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애버딘한인회는 3월 18일 애버딘 시청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23명과 미만인 2명 등 53명의 참전용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행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 애덤 애버딘 시장과 이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금융보국의 꿈 ‘신한은행’ 창립 주역 이희건 회장

‘신한은행’이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2년 7월 7일. 점포 3개에 자본금 250억 원의 초미니뱅크의 출범이었으나 대한민국 금융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이었다. 사상 최초로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세워진 은행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살아가는 동포의 힘으로 일궈낸 금융기관이었다. 창립 주주는 341명으로 모두 재일동포였다. 그중에서도 창립의 일등공신은 이희건(李熙健, 1917~2011년) 회장이다.

이 회장은 일제 식민지 시대이던 1917년 경북 경산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열다섯 살이던 1932년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의 한 무허가 시장에서 자전거타이어 장사를 했다. 갖은 고생 끝에 기반을 다진 그는 1955년 뜻있는 상공인들과 함께 오사카흥은(大阪興銀)이라는 신용조합을 설립해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1974년에는 재일한국인 본국투자협회를 설립하고 고국 금융업 진출을 모색했다.

이 회장은 고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2년 7월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던 340여 명의 재일동포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해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 은행인 신한은행을 설립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는 재일한국인후원회장을 맡아 100억 엔을 모아 한국에 기부하는 등 고국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무궁화훈장을 받았다. 재일동포의 올림픽 성금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체조, 수영, 테니스 3개 경기장과 대한체육회 본부, 미사



2006년 9월 3일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이 우승을 차지한 김지만 선수에게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

서울올림픽 때
재일동포 100억 엔
후원금 모금 주도

”

리 조정경기장을 모두 짓고도 돈이 남는 규모였다.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은 “거액의 올림픽성금을 모은 이면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면세조치를 끌어낸 이희건 회장의 정치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는 일본에서 국내송금 운동 등을 주도해 재일동포들의 조국돕기운동에 앞장섰다.

1990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만국꽃박람회 때 당초 불참하려던 우리 정부를 설득시켰고 1995년 1월 한신대지진 때는 직원들을 총동원해 구호활동을 벌이는 등 양국 우호증진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평소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좌우명을 들려주며 신한은행 임직원을 독려하는 등 조그만 점포로 출발한 신한은행이 짧은 기간에 국내 최고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한국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재일동포들의 애국심에 의해 탄생한 신한은행은 2009년 9월 아시아계 은행 최초로 일본 내 현지법인인 SBJ은행을 설립해 일본으로 역진출하면서 마침내 재일동포의 꿈을 실현했다.

이 회장을 오랜 세월 지켜봐 온 측근들은 그를 ‘사심 없고 자기보다 주위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인물’로 기억한다. 은행회장 시절, 본인의 지분을 늘릴 기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사욕을 채우지 않았으며 되도록 많은 재일동포에게 주식보유의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애썼고,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사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마라.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라.”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회사에 누를 끼칠까 염려하는 유언을 남겼다. **[참]**

‘평창 올림픽 연출’ 참여 加 한인 1.5세 장희용 씨

캐나다 동포 1.5세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연출팀에 합류했다. 주인공은 대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이민한 장희용(현지이름 피터 장·34) 씨.

그는 “4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기획을 담당하는 실무팀에 최종 선발됐다”며 “고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공연 무대를 꾸미는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씨는 2015년 ‘팬암(PanAm)대회’의 개·폐막식 연출을 총괄했다. ‘미주 대륙 올림픽’으로 불리는 팬암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스포츠 행사다. 2015년 7월 10~26일 토론토 등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일대에서 41개국 49개 종목 7천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장 씨는 당시 4명의 무대 감독과 함께 이 제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개·폐막식을 연출했고, 특히 음악, 조명, 안무 등을 총 관리했다. 캐나다이벤트협회(CEI)는 1998년부터 매년 캐나다에서 열린 각종 콘서트, 전시회, 행사 공연 등을 종합해 각 부문 최고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열린 시상식에서 팬암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CEI가 주는 ‘올해 최고 엔터테인먼트 공연상’을 받았고, 평창올림픽조직위도 이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이벤트 관련 경력도 만만치 않다. 토론토 프라이드



2015년 ‘팬암대회’ 개·폐막식 연출을 총괄했던 장희용 씨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키려 한다.

“

‘팬암대회’ 총연출 경험…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무대로”

”

퍼레이드, 청소년 여자월드컵 개·폐막식, ‘제102회 밴쿠버 캐나다풋볼리그 그레이컵’ 하프타임 공연, ‘U-20(20세 이하) FIFA 월드컵’ 공연 등의 무대도 그가 꾸민 행사다. 그는 대형 스포츠 제전의 처음

과 끝을 장식하면서 공연예술계에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토론토의 요크대에 입학해 경제학을 배우면서도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공연의 무대 연출 부문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제7대 캐나다한인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그는 2010년 공연의 메카인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 주립대에서 공부했고,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한인사회의 굵적굵직한 행사인 단오제, 한가위축제, 크리스마스 뮤지컬 등을 연출했다. “올림픽의 처음을 알리고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개·폐막식은 한국 국민이 원하고, 세계인이 주목받을 만한 무대여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기획과 연출이 진행돼야 하고, 모든 스태프가 호흡을 맞춰 나갈 때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무대가 탄생할 것입니다. 두렵고 긴장되긴 하지만 제가 쌓은 경험을 아낌없이 쏟아 붓겠습니다.” 이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녹여 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성장하며 여러 문화를 접했어요. 가장 매력 있는 부분만 끌어내 세계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연기획사 ‘하이퍼 크리에이티브’를 설립해 한인 차세대 양성에도 힘을 쏟는 장 씨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佛 한인사회 '십시일반' 한글학교 전용공간 첫 결실



프랑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파리한글학교 전용 공간을 교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개교 45년 만에 마련했다. 이철중 파리한글학교 교사 매입 추진협회장(전 주불한인회장, 왼쪽)과 작품 기증으로 힘을 보탠 재물화가 권순철 회백.

프랑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파리한글학교 전용공간을 교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개교 43년 만에 마련했다. '파리한글학교 교사 매입 추진협회'(회장 이철중)는 최근 파리 남동쪽 크레믈린 비셰트르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의 1층 152㎡ 공간을 매입했다.

매입 대금 38만 유로(약 4억6,000만 원 상당)는 전액 교민들이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이 공간은 현재 자체 학교 건물이 없어 프랑스의 중학교를 주 1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리한글학교의 전용 시설로 사용된다. 1974년 개교한 파리한글학교는 그동안 '셋방 신세'를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학교는 학생 수 250명에 18학급의 비교적 큰 규모지만, 프랑스의 일반 학교를 매주 한 차례 빌려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

“셋방 신세 벗어날 때까지 모금활동 계속”

”

왔다. 현재는 파리 13구의 차이나타운 인근 구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를 매주 수요일 오후에 빌려 한인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교민사회는 한글학교 전용공간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아 1999년 결성된 '파리한글학교 교사매입 추진협회'를 결성했다. 협회는 재물 예술가들의 재능기부

와 교민사회 등을 상대로 한 자체 모금을 통해 매입 대금을 확보한 끝에 최근 현 파리한글학교가 소재한 구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용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은 '한글의 집'으로 명명됐다.

학교 측은 리노베이션과 화장실 공사 등이 끝나면 이곳을 교실과 교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한글학교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사매입 추진협회는 파리한글학교가 임대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20개 이상의 교실을 갖춘 자체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프랑스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기금마련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협회 측은 3월 8일부터 17일까지 한글의 집에서 기증작품을 모아 교사매입 기념 전시회도 열었다.

이철중(85) 회장은 “교민들만의 힘으로 한글학교 전용공간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파리한글학교가 독립된 공간에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금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장]

김용래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재외국민 대선 투표 신청 ‘역대 최다’ ... 29만8,000 명

5월 9일 열리는 19대 대선에서는 네 번째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재외국민 투표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재외 국민이나 국외거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당시 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됐다.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자 수는 29만7천9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전체 재외 유권자인 197만여 명의 15.1%에 해당한다. 18대 대선에 비해선 33.9%포인트 늘어났다. 20대 총선 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외국민의 선거 신청 기간이 지난 대선에 비해 70일이나 짧은 21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참여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열기의 배경에 대해 조기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허용, 유튜브나 페이스북 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의 결과로 분석했다.

이전의 재외국민투표 결과를 되짚어보면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의 재외국민투표는 초라하게 끝났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실제 투표 참여자는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3천193명의 2.5%에 불과한 5만6천456명이었다. 특히 거주국 영주권자 중 선거인 등록자는 2만여 명에 그쳤다. 제도의 복잡함과 동포사회의 무관심, 선관위의 홍보 부족 등이 이유였다.



5월 9일 선거를 앞두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전체 재외 유권자의 15.1%...
“투표 참여율 갈수록 높아져”

”
약 8개월 뒤 열린 18대 대선에서는 좀 더 나왔다. 110개국에서 22만42명이 선거인 신청을 했으며 실제 투표수는 15만7천291표(무효표 905 포함)였다. 재외 유권자 222만389명 중 7.1%가 참여했다. 여전히 높은 참여율은 아니나 19대 총선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20

대 총선은 197만8천197명의 재외 유권자 중에 선거인 신청자는 15만4천217명이고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재외 유권자의 3.2%다. 18대 대선보다는 감소했으나 이전 총선과 비교하면 13% 증가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은 7만 명 가까이 신청하며 가장 많은 선거인명부 등재자수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 4만3,977 명, 일본 3만8,625 명 순이다. 이 세 나라가 전체의 등재자수 합계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공관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1만6천60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 총영사관 1만4천194 명, LA총영사관 1만3천697 명 순이다. 대륙별로 따지면 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이고 이어 아메리카 대륙, 유럽, 중동 등의 순이다. **창**

쿠바 한인후손 6명 재외동포재단 초청 직업연수 수료

재외동포재단은 3월 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의 재단 대회의실에서 '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수료식'을 열었다.

재단은 쿠바 한인 후손 청년 6명을 초청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4개월간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직업연수를 받게 했다. 이들은 한식조리를 집중적으로 배웠고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 한국 문화체험 참여를 통해 정체성도 키웠다.

재단은 한국-쿠바 교류 활성화, 쿠바 한인후손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직업교육을 통한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쿠바에 부는 한류 영향으로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한식당을 창



재외동포재단은 '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수료식'을 3월 2일 외교센터 회의실에서 열고 4개월 간 연수를 마친 한인 청년들을 격려했다.

업하거나 요리사로 취업을 희망해 한식 조리 과정을 개설했다.

연수를 마친 이들은 "모국의 따뜻한 한대와 배려에 감사하다. 한국계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현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한식 조리를 배웠기에 돌아가면 바로 응용해 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기 이사장은 "일본 강점기인 1921년 쿠바에 첫발을 디딘 한인들은 열악한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십사일반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탬"이라며 "직업연수는 이들의 후손이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거주국에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 연례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남도국악원과 손잡고 고려인 전통문화예술가 육성

재외동포재단은 3월 27일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과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전통문화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재단과 협업으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전통문화 예술가를 초청해 국악 등 한국문화 교육을 펼쳤다.

협약에 따라 국악원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고려인 예술가를 초청해 한국무용, 사물악기 등 국악 실무교육과 한국 문화체험 등을 실시한다.

재단은 고려인 사회에 한민족 전통문화 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 보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문화 예술가 초청 연수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철기 이사장은 "한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인적 자원이 부족한 고려인 사회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취지"라며 "전문성 강화와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한조선족·고려인 한글학교에 기자재 전달

재외동포재단은 3월 4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도서관에서 '어울림 주말학교'(교장 문민)에 교육 기자재를 전달했다.

주철기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문민 교장에게 멀티미디어 수업을 위한 TV,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정보화 기자재와 사전, 위인전 등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 학교는 중도 입국한 조선족 자녀를 위해 동북아평화연대가 세웠다.

주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재단은 국내 체류 동포 자녀의 한국어·한국 문화 습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뿌리를 잊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

했다.

문 교장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면서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지 않도록 한중 양국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며 “재단의 지원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을 배울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단은 앞서 3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고려인 지원단체인 ‘너머 사동센터’에도 동일한 교육 용품을 후원했다. 이 센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려인 자녀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돌봄방’과 고려인 성인들이 퇴근 후 한국어를 배우는 야학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70만 명을 상회하는 국내 체류동포가 겪는 자녀 교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3월 4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도서관에서 국내 체류 조선족 자녀를 위한 ‘어울림 주말학교’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했다.

재단, 전국 중·고·대학서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 확산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시작한다.

재단은 올해부터 이해교육을 중학교로 확대했다. 첫 교육은 3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중학교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최동준 재단 기획이사는 학생들에게 “720만 재외동포는 우리 국적 보유자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



재외동포재단의 최동준 기획이사는 3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펼쳤다.

민’과 우리 국적을 보유하지 않지만 한민족의 일원인 ‘외국 국적 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라며 “이들은 국회의원, 장관, 시장, 대학 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거주국과 한국 간 가교 역할에도 나서는 한민족의 든든한 자산”이라고 소개했다.

재단은 전반기에 전국 17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4개 대학 등 총 42개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해교육 강사로는 재단 임직원, 전직 외교관, 학계 인사들이 나선다. 이들은 강연에서 재외동포의 의미, 형성과정, 거주 현황 등 재외동포 일반 현황과 지역별 동포사회 특징, 모국 기여 활동 등을 소개한다.

주철기 이사장은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동북아 평화 안정 구축을 위해 거주국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재외동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일의 희망인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이해교육을 지속해서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02회 강의를 통해 4만8천926명의 고등학생과 9천339명의 대학생에게 재외 동포 이해교육을 펼쳤다.

중국·러시아·CIS 조선족·고려인 대학생에 장학금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중국과 러시아·CIS 지역에 사는 조선족과 고려인 차세대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동포 학생을 지원해 거주국 주류사회의 진출을 돕자는 취지로 현지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각각 70명씩 뽑는다.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학생에게는 1년간 1천200달러, 그 외 지역은 1천 달러를 지원한다.

선발 기준은 성적, 가정 형편, 한국어 능력, 교내외 수상 경력 등이다. 유공동포 후손, 거주국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후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한글학교 졸업생 또는 교사는 우선 선발한다. 이전에 선발됐던 학생도 재신청할 수 있다. [장]



내가 사는 숨가이트를 소개합니다

김예향 _ 아제르바이잔 _ 2016 동포문학상 초등부문 최우수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숨가이트 도시에서 살고 있는 13살 김예향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엄마, 아빠, 나 그리고 2명의 작은 남동생과 2명의 작은 여동생이 있어요. 저는 첫째입니다. 저와 동생들은 많이 티격태격해요. 여동생과는 많이 싸우는 편이어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전 우리 가족이 좋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숨가이트(숨-지역이름, 가이트-돌아오다) 이름에는 뜻이 담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사랑하는 남녀가 살았어요. 그 남자가 사슴을 찾으러 떠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던 여자가 숨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숨/가이트'로 불리고 있어요.

도시 이름의 의미가 많이 궁금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많다며 어느 것이 진짜 의미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숨가이트는 해변도시인데 바다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비둘기 동상이 있는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 그런지 이곳을 평화의 도시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제 동생 2명은 5번 학교(이곳 학교는 한국처럼 학교이름이 없고 번호로 학교이름을 정하고 있어요)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11년제인데 곧 이곳도 12년제

로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은 한국과 달리 가을이 신학기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무척 길어 3달이나 됩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학기 중에는 빨리 방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방학이 되면 방학기간이 너무 길어 학교 가고 싶기도 해요.

저는 2012년에 한국에서 약 1년간 한국 초등학교를 다녀보았어요. 한국학교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 비하면 이곳 학교는 작고 불편하고 화장실 냄새도 많이 나고 운동장도 너무 작고 점심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숙제만 잔뜩 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공부를 잘 못해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현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이제는 학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제겐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좋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욕심이 많아 제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를 해서 그것이 한 가지 흠이긴 해요. 한국 학용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서로 달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식당에서 같이 춤도 추고 군것질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해요. 우리 반 여자 친구들은 승부욕이 너무 강해 체육시간에 많이 다투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이곳 숨가이트에는 가난한 사람과 전쟁난민이 많아서 많이 불쌍해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성격도 급하고 운전은 매우 위험하게 해서 사고도 많이 나서 겁이 나기도 해요.

또 이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데 차를 마실 때 마다 꼭 각설탕 2~3씩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빨은 거의가 누런색이랍니다. 그리고 기름기 많은 고기도 많이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아 많이 뚱뚱해요. 정말 계몽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곳 전통음식에는 밥이 달라붙지 않는 노란색의 기름 볶음밥과 포도 잎과 피망과 양배추에 고기와 밥을 넣어 돌돌 말아 찌낸 돌마 라는 음식이 있는데 진짜 맛이 있어요. 이 맛있는 전통음식들 때문에 제가 이곳에 어쩔 더 잘 정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

이곳은 놀이문화가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아침부터 동네에 나와 축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놀기도 합니다.

이곳을 살면서 몇 가지 바람이 생겼어요.

이곳 사람들은 우리들을 중국 사람이라며 놀려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잘 참고 있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해요. 학교에선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기에 괜찮지만 아무튼 중국 사람으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맥도날드, KFC, 피자헛이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도 피자도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럴 때면 우리 가족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수도인 바쿠에 나가 사먹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는 찜질방도 없고 한국과 같이 목욕탕도 거의 없어 집에서 힘들게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곳 상황에 비해 너무 큰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도 맥도날드, KFC, 찜질방 등이 생기면 정말 좋겠어요. 꿈을 꾸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 우리 숨가이트도 한국처럼 많이 발전하게 되길 기대하며 살아갈 겁니다.

‘숨으로 돌아와’ 라는 숨가이트란 도시 이름의 의미처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숨으로 오셔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제가 멋진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장**



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서울 토박이 음식 ‘설령탕’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서도 변함없는 사랑 받아”



설령탕은 가스 불로 14시간가량 푹 끓인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뜨끈한 설령탕 한 그릇은 고달픈 마음을 일거에 따듯이 다독여 주는 위안의 힘을 담고 있었다.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설령탕.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설령탕은 서민들의 삶과 소망을 함축한 탕반의 대명사였다. 일상에서 고기 음식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터라 뜨끈한 설령탕 한 그릇은 고달픈 마음을 일거에 따듯이 다독여 주는 위안의 힘을 담고 있었다. 물론 지금은 누구라도 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친근한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설령탕은 소뼈와 소고기가 중심이 된 탕류 음식이다. 쌀밥과 소면 위에 머릿살과 양지, 만하바탕 등의 고기가 얹히고 대파와 후추, 소금 등의 재료와 양념이 추가되면 특유의 맛깔스러움을 더욱 깊게 한다. 기본 반찬은 깍두기와 배추김치로 소박·단순한 편이다. 설령탕의 백미는 역시 맑은 듯 깊은 맛이 느껴지는 뼈다귀 국물이다. 커다란 압력솥에 머리 부위에서 다리 부위까지 소뼈를 담고 물을 넉넉히 부은 뒤 가스 불로 14시간가량 정성껏 끓인다. 무쇠솥에 장작불이나 연탄불로 지켰던 시절에는 이보다 10시간이나 더 긴 꼬박 하루 24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서양식 퓨전 음식이 날로 주목받는 시류 속에서도 설령탕의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다. 나이 많은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설령탕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조선 시대에 임금 이 선농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 직접 농사짓는 시범을 보인 장소인 선농단(先農壇)에서 비롯됐다는 것. 경칩 때인 양력 3월 5일이나 6일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수고한 조정대신과 백성들에게 소를 잡아 만든 국밥을 내렸다.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라고 해 ‘선농탕’에 이어 ‘설농탕’이라고 불렸다는 얘기도. 이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는 매년 봄에 선농대제(先農大祭)가 열리고 참가자들에게 설령탕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지명인 ‘제기동(祭基洞)’은 ‘제사를 지낸 터’라는 뜻이다.

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설령탕이 몽골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도 있다. 몽골에서 고깃국을 ‘술루’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한반도에 들어와 ‘술루탕’에서 ‘설령탕’으로 음운 변화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와 함께 ‘어떤 일을 대충 대충



한다'는 뜻의 의태어인 '설렁'과 한자어인 '탕' (湯)이 결합해 이뤄진 말이라는 설도 있다. '설렁설렁 끓인 탕'이라는 뜻이랄까.

아무튼, 설렁탕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울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거듭난다. 특히 서울에는 '이문옥', '대성관', '사동옥', '이남옥' 등 유명 식당들이 번성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식당은 '이문설농탕'의 전신인 '이문옥'. 1904년 종로구 공평동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 음식점에는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을 비롯해 마라톤 선수 손기정,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등 유명인들이 단골로 드나들었다. '이문'이라는 이름은 마을을 드나드는 작은 문이자 초소였던 '이문' (里門)에서 연유했다. 이문옥은 2011년 지금의 견지동 자리로 이전했고 2013년 서울시에 의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설렁탕'과 '곰탕'은 어떻게 다를까? 설렁탕이 솥에 사골, 소머리, 등 주로 뼈를 넣고 끓여 먹는 탕이라면, 곰탕은 뼈보다는 소꼬리, 양지, 내장 등의 고기를 넣고 오랫동안 푹 고아서 만드는 탕을 말한다. [▶](#)



가장 오래된 설렁탕 식당인 '이문설농탕'. 이 식당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의 10대 한류 명소

- 1 **남산서울타워**: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도민준' 커플의 사랑의 자물쇠가 걸려있는 곳
- 2 **경복궁**: <해를 품은 달> '이환'이 거닐던 조선 왕조의 정궁
- 3 **청계천**: <우리 결혼했어요> 육성재-조이 커플의 달달한 데이트 장소
- 4 **남산골 한옥마을**: <무한도전>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재석·광희의 추천명소
- 5 **여의도 한강공원&한강유람선**: <무한도전> 박명수·정형돈이 추천하는 서울의 필수 데이트 코스
- 6 **덕수궁**: <무한도전> 유재석이 추천하는 '무도투어' 속 백미
- 7 **COEX, SMTOWN@coexartium**: SM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
- 8 **한류스타거리(K-Star Road)**: 한류스타의 탄생지! 대한민국 대표 연예기획사 밀집지역
- 9 **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우리 결혼했어요> 정용화-서현 커플의 첫 번째 데이트 장소
- 10 **세빛섬&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아이리스>, <그녀는 예뻐다> 촬영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다. 지상 8층 건물에 4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강의실, 카페, 문화 상품점,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4개의 상설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 유묵, 3·1 독립선언서, 6·25 전사자 유품,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 등 약 1,500여 점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 박물관 1층에는 2개의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역사체험학습공간인 '우리역사 보물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2017.4.1 SAT ~ 5.31 WED

| 한국시간 기준 |

응모 자격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작품 주제

성인부문 | 자유주제

청소년부문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도시(지역)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자랑스러운 한국인, 전반적인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직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재외동포 관련) 등

공모 분야

성인 부문

분 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시	3~5편	제한없음
수필	3편 이내	글자수 4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4매 내외
단편소설	3편 이내	글자수 6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13매 내외

청소년 부문

구 분	분 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중·고등학생	글짓기	3편 이내	글자수 3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3매 내외
초등학교	글짓기	3편 이내	글자수 2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2매 내외

※ 이밖의 한글 창작물이여야 하며, 원고분량 80%이전 혹은 50% 이상 분 일때
※ 작품용모서리는 크레딧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용모서리 기준을 준 것이지 원고지 용량

시상내역

성인부문

대상(3명) | 300만원·상패, 장르별 1인
우수상(6명) | 200만원·상패, 장르별 2인
가작(9명) | 50만원·상패, 장르별 3인

청소년부문

1. 중·고등학생

- 최우수상(1명) | 100만원·상패
- 우수상(2명) | 50만원·상패
- 장려상(3명) | 30만원·상패

2. 초등학생

- 최우수상(1명) | 100만원·상패
- 우수상(2명) | 50만원·상패
- 장려상(3명) | 30만원·상패

3. 한글학교

- 특별상(2개교) | 200만원·상패

※ '청소년 부문'에 필요한 항목이 충족되어 있는 학교에 한해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Tel. +82-2-3415-0097 E-mail. culture@okf.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www.korean.net

주최



후원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할 [통]

함니다

72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